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 수 환 추기경

살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यो.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यो.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यो.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यो.
부부란! 비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यो.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마른장마에 단비가 내린다.





표지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CONTENTS

권두시	02	비 김수환 추기경
팀원들의 이야기	06	금연에 이르는 길 이상로 과장(가정의학) 라우렌시오
	07	작은 소망을 큰 기도로 전영주 (아가페) 수녀
	08	오늘도 무사히 한수연 (101병동) 간호사
	09	따뜻하고 좋은 기억으로 이 세상에 남길 바라며 윤여준(리오바) 자원봉사자
실습생의 이야기	10	설마 내가 인제대학교 의대본과 4학년 곽○○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1	11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2	12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3	
자원봉사자들의 NEWS	14	
후원회 소식	15	
진료시간표	16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가정의학과장
이 상 로 (라우렌시오)

금연에 이르는 길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의 주범,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며 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담배를 끊었을때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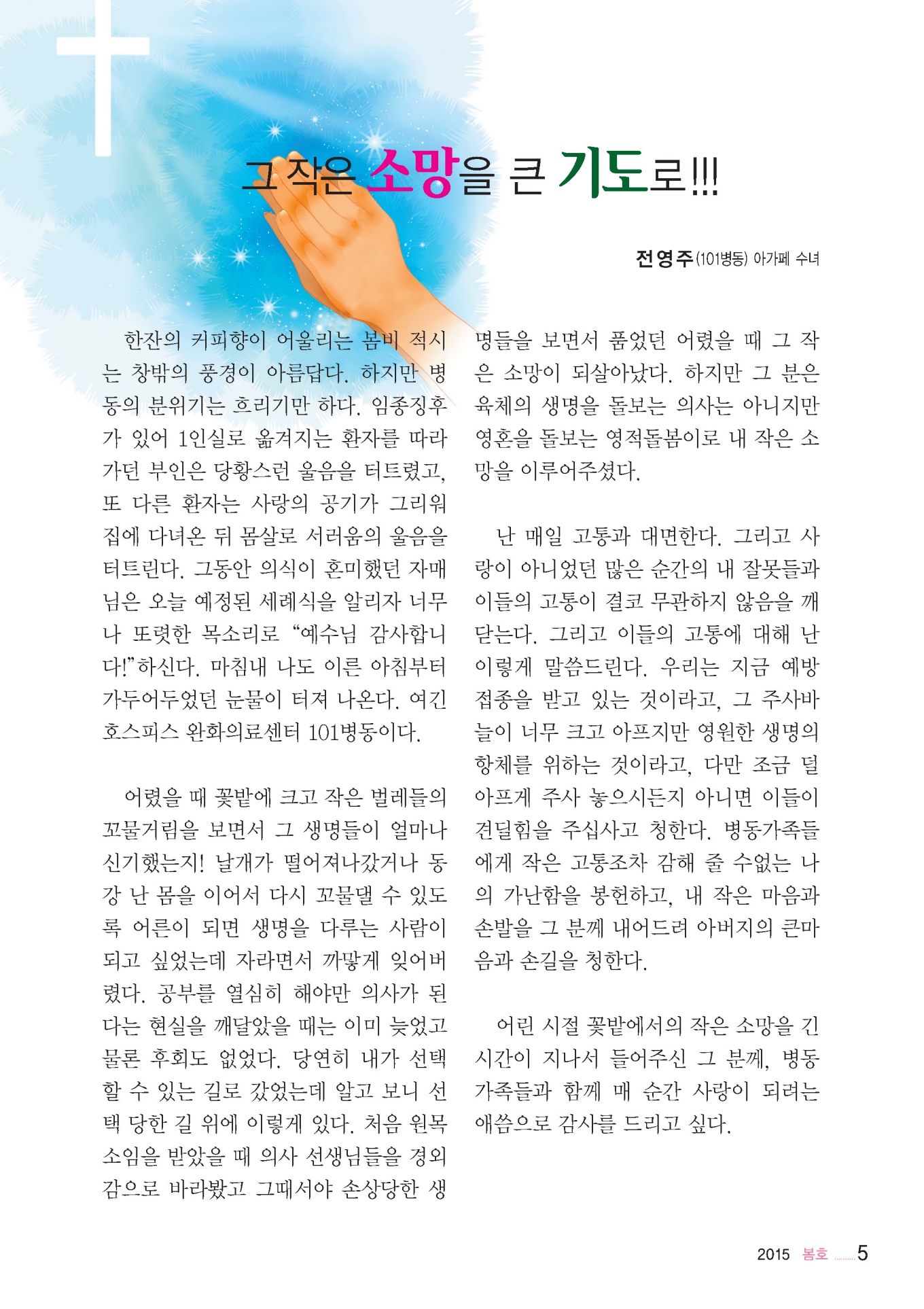
1. 당신의 외모가 달라져서 훨씬 젊어 보일 것 입니다.
옷과 피부에 밴 담배 냄새가 없어집니다.
2. 당신의 몸이 건강해져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맛과 냄새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3. 모든 일에 저절로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금연에 성공하신 여러분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4. 매일 용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담배 한 갑씩 365일의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5.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폐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뇌졸중, 심장병, 각종 암으로 인한 질병 사망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연자에게 드리는 몇가지 도움말

1. 담배를 살 때에는 반드시 1갑만 사도록 하고 담배를 살 때마다 매번 담배 종류를 바꾸어 사도록 하십시오.
2. 담배를 다 피우고 또 담배를 사려고 하기 전에 1시간만 기다렸다가 담배를 사도록 하십시오.
3. 다 피운 담뱃갑을 버릴 때마다 그 숫자를 세도록 하십시오.
4.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5. 담배를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담배를 책상 서랍이나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담배를 피울 때마다 일어 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때 담배를 넣어 두던 곳에 무가당 껌 등을 넣어 두도록 하십시오.
6. 음주를 할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취침 전 마지막 담배를 피울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다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8. 운전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그리고 TV를 시청할 때에는 흡연하는 대신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도록 하십시오.
9.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주거나 또는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0. 재떨이를 모두 치우도록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투명한 병으로 재떨이를 대신하고 그 병을 비우지 않도록 합시다

■ 금연상담

문의 : 051-933-7971 (가정의학과 외래)



그 작은 소망을 큰 기도로!!!

전영주 (101병동) 아가페 수녀

한잔의 커피향이 어울리는 봄비 적시는 창밖의 풍경이 아름답다. 하지만 병동의 분위기는 흐리기만 하다. 임종징후가 있어 1인실로 옮겨지는 환자를 따라가던 부인은 당황스런 울음을 터트렸고, 또 다른 환자는 사랑의 공기가 그리워 집에 다녀온 뒤 몸살로 서러움의 울음을 터트린다. 그동안 의식이 혼미했던 자매님은 오늘 예정된 세례식을 알리자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하신다. 마침내 나도 이른 아침부터 가두어두었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여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101병동이다.

어렸을 때 꽃밭에 크고 작은 벌레들의 꼬물거림을 보면서 그 생명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날개가 떨어져나갔거나 동강 난 몸을 이어서 다시 꼬물댈 수 있도록 어른이 되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자라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의사가 된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물론 후회도 없었다. 당연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로 갔었는데 알고 보니 선택 당한 길 위에 이렇게 있다. 처음 원목소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을 경외감으로 바라봤고 그때서야 손상당한 생

명들을 보면서 품었던 어렸을 때 그 작은 소망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 분은 육체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혼을 돌보는 영적돌봄이로 내 작은 소망을 이루어주셨다.

난 매일 고통과 대면한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던 많은 순간의 내 잘못들과 이들의 고통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에 대해 난 이렇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 주사바늘이 너무 크고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의 항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다만 조금 덜 아프게 주사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들이 견딜힘을 주십사고 청한다. 병동가족들에게 작은 고통조차 감해 줄 수 없는 나의 가난함을 봉헌하고, 내 작은 마음과 손발을 그 분께 내어드려 아버지의 큰마음과 손길을 청한다.

어린 시절 꽃밭에서의 작은 소망을 긴 시간이 지나서 들어주신 그 분께, 병동가족들과 함께 매 순간 사랑이 되려는 애씀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오늘도 무사히 ...

이른 아침... 새벽공기를 마시며
스쿠터를 타고 텀킵텀킵 출근을 한다.



한수연 (101병동) 간호사

오늘은 어떤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까?

혈압을 재고, 욕창을 소독하고
혈관 주사를 주고, 진통제를 준다.

하지만 뽀-뽀-뽀-
떨어지는 혈압과 산소수치.
환자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하셨다고, 편히 쉬시라고
기도하는 것 뿐.

더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담아 축 쳐진 손을
교욱 잡아본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는 길
돌아가셨던 환자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려 본다.
마치 나에게 잘 있다고 대답이라도 하는 듯
말갱게 핀 벚꽃들이 화사하게 웃는다.





설마 내가...

곽○○ (인제대학교 인제의대 본과4학년)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문에서 한 이야기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고,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없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25살이라는 내 나이는 죽음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리지만, 2015년 3월 어쩌면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곳 호스피스 병동 실습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종영한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에서도 한 가정이 말기암을 진단받고 가족끼리 추억을 만드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말기암이라는 소재를 많이 다룸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3일간의 짧은 실습이었지만 팀으로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이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교수님께서 환자를 대하실 때 다른 실습지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시는 모습이었다. 솔직히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보면 제가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교수님들을 가끔 보았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의 작은 이야기에든 귀 기울여 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닮고 싶어졌다.

두 번째는 수녀님께서 환자와 가족들과 상담하면서 가족 간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고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시려는 모습이었다. 누구나 가족사가 있기는 마련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면 모두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수녀님의 이러한 노력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는 이곳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동 환자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이었다. 프로그램 통해 소원을 이루어준다든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애정이 느껴져서 좋았다. 본과 2학년 때 노인의학을 배운 후 약간 관심이 있었던 나로서는 이곳 호스피스 실습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모습의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



여보,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로써 남편을 챙겨야 하는데 자식이 1순위다보니
 당신을 챙기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피로에 병인 난 걸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너무 화나고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병이 나고 보니 1순위를 당신에게 놓지 않았던 걸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보,
 모든 걸 운명이라 여기고 나도 당신 곁에 갈 날까지 먼저 가서 기다려 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김○○님 부인

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삶과 죽음의 앞에서 생각하니 참으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살아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딸들 결혼하는 거 보고 손자도 안아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님 남편

여보,
 당신께 다정하게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몸이 손전치 않으니 더 부드럽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잘 이해해 줘요.
 남은 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님 부인

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 조○○씨!
여보, 난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당신을 만난 거야.
난 정말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 내가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도 당신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당신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지. 당신이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어 하고 윗사람한테 화난 거 다 저한테 풀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똑 같아요. 실컷 투정부리고, 힘든 것, 짜증나는 것 다 내려고요.
당신 아니면 누가 저한테 그러겠어요. 다 받아들이겠다고,..
난 행복하게 받아들일게.
그리고 당신, 꽃을 좋아하잖아. 조금 있으면 개나리도 4월에 피고, 벚꽃도 피고,
우리 그때 손잡고 아들 차타고 이기대도 예전처럼 돌아 봐야지.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차타고 우리 손잡고, 며느리랑 벚꽃 구경 가자.
당신을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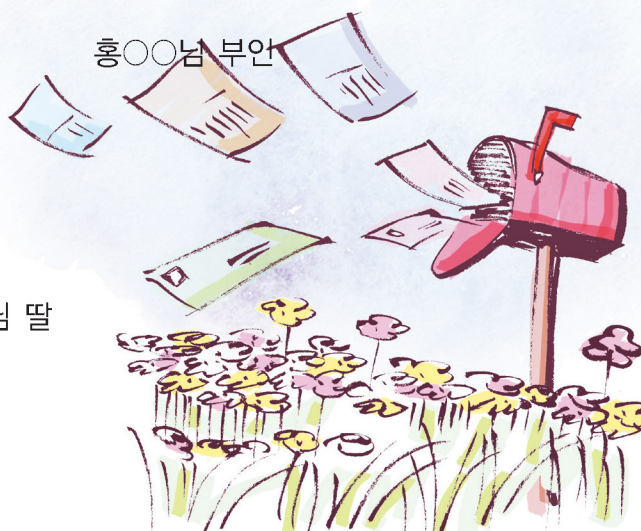
당신을 사랑하는 정○○

사랑해, 진정한 사랑을 당신과 나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그만 당신의 손을 힘주어 잡아
주며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해주려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사랑을 꿈꾸렵니다.

엄 마
사 랑 합 니 다 ~*
큰 딸 ♥

김○○님 딸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후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소식

1. 후원금 관리의 목적

후원금 모금 사업을 통하여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완화의료치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후원방법

후원인이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아래 계좌로 자동 이체

3. 후원계좌번호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

부산은행 : 101-2016-1784-06

예금주 : 재)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4.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 합니다.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장례비, 의료비 지원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벤트 지원(생일, 축일, 결혼기념일, 세례식, 소원 들어 주기 등)
- 사별가족 중 위험도 사정을 기초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5. 후원 안내 및 질의

TEL. 051) 933-7133, 7137

6. 후원자 명단 (2014년 5월 ~ 2015년 3월까지) 127명

강정아, 강민정, 강선영, 강종원, 고영주, 고종수, 공정자, 권보식, 권아름, 권현순, 김경선, 김경숙, 김나래, 김다애, 김미경, 김미영1, 김미영2, 김미옥, 김미애, 김민진, 김병국, 김보혁, 김선경, 김선주, 김수연, 김순자, 김안나, 김양희, 김은영, 김인태, 김정임, 김준현, 김진순, 김혜란, 김혜정, 나선길, 남효연, 류채민, 문순희, 문원찬, 문정아, 문하영, 박경태, 박기혁, 박미희, 박병건, 박선영, 박성현, 박연화, 박영철, 박윤희, 박은경, 박정언, 박치호, 박필섭, 박현희, 박혜진, 반혜진, 배정희, 배홍철, 백경돈, 서청민, 성세비, 송미경, 송민경, 송해림, 신태우, 신희제, 안금옥, 안희도, 양택모, 연제옥, 오수정, 유숙남, 유영순, 유은정, 윤명숙, 윤태업, 윤해복, 이국향, 이금숙, 이두리, 이상로, 이상일, 이성미, 이순영, 이아나, 이연향, 이유미, 이원향, 이은경, 이진향, 이행우, 임채상, 임혜정, 장종표, 장효재, 전대현, 정미경, 정선화, 정수분, 정영란, 조수현, 조영채, 조정자, 조현숙, 조효정, 조행련, 주창진, 진지혜, 진홍기, 천경진, 천 하상바오로, 최금희, 최수현, 최순희, 최영숙, 최원웅, 최은경, 최정순, 태봉규, 하미혜, 하형규, 하해웅, 한수연, 호스피스봉사자회, 황윤희

※ 호스피스 후원 회원님들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식지 “동행”을 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1. 세계병자의 날 행사

제23회 세계병자의 날(2월 11일)을 맞이하여 본원에서는 음악회 및 혈압, 혈당,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실시하였다. 이에 완화의료센터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 가족들에게 카드와 꽃을 함께 드리며 희망과 격려, 파이팅을 외치는 시간을 가졌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확산 특강

김숙남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본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미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청각 언어장애인들도 참여하여 수화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 * 일 시 : 2015년 2월 16일(월) 17:00~18:30
- * 장 소 : 본원 4층 베네딕도홀
- * 참 석 : 200여명 이상

3. 2015년 1차, 2차 사별가족 모임

사별가족들과 영적돌봄수녀, 팀장, 수간호사 외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서로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용기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서로에게 위안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사별가족위험도 사정을 통하여 위험도 지수가 높은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 필요시에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일 시 : 2015년 2/24, 4/28 오후 2시 (짝수달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
- * 장 소 : 본원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NEWS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4. 2015년 부활축하 & 환자 및 가족 특식 행사

환자 및 가족들과 예수부활의 참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부활장식을 만들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 만찬을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일 시 : 2015년 4월 6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 소 : 본원 10층 완화의료센터



5. 2015년 통증 캠페인

1. 원내

*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10:00~16:00

* 장 소 : 본원 1층 로비,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 대 상 : 외래환자 및 방문객, 입원환자와 가족 등

* 내 용 : 병원장님의 축하 인사와 통증교육, 리플렛,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인식확산을 할 수 있었다.

2. 원외 (7권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행사)

* 일 시 : 2015년 5월 16일(토) 10:00~16:00

*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 거리

* 대 상 : 일반인

* 내 용 : 7권역(부산, 울산, 경남지역)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행사로, 통증교육 및 상담, 거리걷기대회, 리플렛, 기념품 배부 등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NEWS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 교육

자원봉사자들의 심화교육 ‘그리스도 영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성숙된 나눔, 동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환자에게 이웃이 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 * 일 시 : 2015년 3/16일, 5/18(월) 10:00~12:00
- * 장 소 : 본원 4층 베네딕도홀
- * 강 사 : 한종민(원목사제)



2.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

제15회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과 팀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서울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신 박준양 신부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진된 호스피스 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 일 시 : 2015년 3월 5일(목) 13:00~16:20
-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피정 (4월 20일)

아가페수녀(영적돌봄)의 지도로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성향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들의 피정이 있었다. 하느님이 주신 우리 고유의 본성을 존중하여 환자와 가족들,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도 긍정적이며 보람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환자들분** : 김숙희, 김여정, 김영희, 김옥순, 김용심, 김정순, 김주찬, 김진순, 김혜전, 김화일, 박기순, 박묘순, 박점숙, 배영순, 선정임, 양정순, 유숙남, 이두이, 이병영, 이영숙, 이정아, 이해영, 장쌍란, 정미경, 조순화, 최학문, 허정미

♣ **행정봉사** : 김인태

♣ **목욕봉사** : 김두순, 김말순, 김영숙, 김진한, 류선구, 류재해, 박수정, 선석호, 이정방, 임수택, 장해경, 전군자, 정성규, 정인창, 최두철, 한승수, 황성모, 황종석

♣ **이미용봉사** : 조복순, 김순이

♣ **기도봉사** : 신하자, 이경록, 정도태, 정인순, 조대례사, 최행자

♣ **각종 프로그램봉사**

- **음악** : 고수지, 김나연, 김미애, 김수연, 김순옥, 김정민, 김현옥, 김혜전, 노미애, 문소현, 박경선, 박경우, 박삼홍, 박선주, 박정숙, 박혜정, 성경희, 신경이, 양나은, 윤지수, 윤하정, 이정미, 이미숙, 이상균, 이자경, 이지은, 장영숙, 장혜련, 전경란, 정인숙, 최민정, 한옥례, 한우인, 허문웅, 황옥경

- **한국무용** : 박분자, 배혜경, 윤여준, 천희정

- **창** : 배미옥

- **미술** : 원보미, 이정아

- **풍선아트** : 김우희

- **원예** : 김현실

- **명상** : 송영경, 정명숙

- **차** : 김영선

- **리본공예** : 배상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1,3주 : 가정의학과 2,4주 : 혈액종양내과 ※토요일 오후 휴무	
오후	혈액종양내과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혈액종양내과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051) 933-7133

■ 완화의료센터 진료 예약 051) 933-7087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